

지성 “‘판사 이한영’, 단순 법정 드라마 아니라 생각했죠”

“이한영을 통해 이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작품”

“‘판사 이한영’은 단순한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부정, 타락 등 어둠을 사랑했던 한 인물이 그 어둠과 결별하는 여정을 그린 드라마로 보고 접근했죠.”

배우 지성은 지난 2일 열린 새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 제작발표회에서 이 드라마가 그간 시청자들이 봐 왔던 법정물과는 결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판사 이한영’은 돈과 권력에 순응해 대형 로펌이 시키는 대로 판결했지만 결국 버림받은 이한영 판사(지성 분)가 우연히 10년 전 짧은 시절로 회귀하면

서 과거 삶과는 달리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지성이 판사 역할을 맡는 것은 2021년 tvN 드라마 ‘악마판사’ 이후 5년 만이다.

지성은 “드라마 ‘악마판사’와 ‘판사 이한영’ 두 작품은 결이 분명히 달랐다”며 “다시 판사 역할을 맡는다고 해서 부담이 되진 않았다. 이 드라마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악마판사’와는 다르게 이 작품은 이한영이란 인물의 감정을 그린 스토리”라며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나아가는 이한영을 통해 이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원진아 역시 ‘판사 이한영’은 일반적인 법정 드라마들과는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봤다.

그는 “처음에 재판장면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판보다 밖에서 뛰고 기싸움을 하는 장면들이 더 많았다”며 “이한영 판사와 공조할 때도 진지한 무게감보단, 어떻게 해야 더 분위기를 띠



배우 지성이 지난 2일 열린 ‘판사 이한영’ 제작 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고 통쾌함을 주고,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상의해가며 촬영했다”고 했다.

극 중 원진아는 복수를 꿈꾸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김진아 역을, 박희순은 권력욕이 넘치는 형사수석부장 판사 강신진 역을 맡았다.

이 작품은 동명 인기 웹소설·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웹소설과 웹툰의 합산 조회수는 1억회에 달한다.

박희순은 “처음 4권의 대본을 받아 봤는데, 1, 2부에 제 역할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며 “3, 4부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서 원작 웹툰을 정주행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작품은 이한영을 어떤 배우가 맡는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했는데, (2015년) ‘MBC 연기 대상’에 빛나는 지성 씨가 맡았다는 이야기에 묻

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정했다”며 웃음 지었다.

‘판사 이한영’은 새해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이자, MBC의 올해 기대작 중 하나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만 널슨코리아 전국 기준 14%의 시청률을 보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SB S 드라마 ‘도법택시3’와 편성이 겹쳐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출을 맡은 이재진 PD는 “솔직히 부담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저도 ‘도법택시3’를 몰래몰래 챙겨보고 있는데, 저희와는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드라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드라마는 생각보다 장르적으로 복합적인 부분이 많다”며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척척의 오늘의 운세

음력 11월 17일

천문역원 (062)673-2427



쥐띠: 주말의 여유는 잊고 신발끈을 둘어매고 다시 뛸때다.

36년생: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고 활동력이 넘치니 기분 좋은 하루가 예상된다. 48년생: 기다리던 자녀나 친지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와 근심이 사라진다. 60년생: 공들였던 중요한 거래나 계약이 성사될 운이니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라. 72년생: 주초부터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아지지만, 능히 해결하고 능력을 증명한다. 84년생: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잘 살피고 눈치 빠르게 행동해야 화를 면한다. 96년생: 모임이나 회사에서 어디를 가나 인기가 폭발하니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소띠: 우직한 독심으로 밀고 나가면 장애물도 저절로 비켜간다.

37년생: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 차 한 잔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라. 49년생: 내 주장만 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다. 61년생: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아도 순리대로 술술 풀리니 걱정하지 마라. 73년생: 직장에서 승진이나 좋은 보직으로 이동할 예감이 드는 기분 좋은 날이다. 85년생: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언행을 무겁게 하라. 97년생: 간절히 원하던 시험 합격이나 취업 운이 따르니 힘을 기자라.

호랑이띠: 당신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빛을 발하는 하루다.

38년생: 다리에 힘이 풀릴 수 있으니 거동이 불편하면 지팡이를 꼭 쟁겨라. 50년생: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존경받으니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라. 62년생: 꽉 막혔던 사업 운이 시원하게 트이니 지금 회전이 원활해진다. 74년생: 골치 아팠던 운행 대출이나 금전 문제 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86년생: 경쟁사나 다른 부서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니 몸값이 된다. 98년생: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거나 이직할 운이 들어오니 변화를 받아들여라.

토끼띠: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길하다.

39년생: 일맛이 없어도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건강 관리가 장수의 비결이다. 51년생: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문서와 관련된 좋은 일이 생긴다. 63년생: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하게 세우기는 돈을 막아야 한다. 75년생: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고 솔직히 헬스를 행거라. 87년생: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니 외모에 신경 써라. 99년생: 열심히 일한 대가로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성과금을 받는다.

용띠: 잠자되어 있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기에 최적의 날이다.

40년생: 오래되어 고장 난 가전제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에 좋은 날이다. 52년생: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땀이 생기니 무조건 순종하라. 64년생: 투자 수익이 발생해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친구들에게 한 푸드내라. 76년생: 의욕이 앞서 과로하기 쉽다. 건강이 재산임을 잊지 말고 쉬어가라. 88년생: 직장 상사의 기분을 잘 살피며 처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00년생: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자격증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다.

뱀띠: 화려한 걸모습보다는 내면의 실속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41년생: 마음의 안정을 찾으니 집안이 평화롭고 걱정 균형이 사라진다. 53년생: 자녀나 아랫사람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고 입이 귀에 걸린다. 65년생: 무료로 일상에서 활력을 줄 새로운 취미 생활에 뚝 빠져버라. 77년생: 이시 운이 들어오니 새로운 보금자리를 알아보거나 준비하라. 89년생: 연인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미래를 약속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01년생: 용돈이 부족할 수 있으니 아껴 쓰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라.

말띠: 열정적으로 달리는 것도 좋지만, 주변을 살피는 여유도 필요하다.

42년생: 물줄이나 허리 통증을 조심하고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라. 54년생: 보증은 패기 망신의 지름길이니 아무리 친해도 절대 서주지 마라. 66년생: 주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덕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78년생: 칭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니 놓치지 마라. 90년생: 짹사랑하던 이에게 진심을 전하여 성공하여 연인이 된다. 02년생: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양띠: 배우는 마음을 가지면 인복이 쌓여 훗날 큰 힘이 된다.

43년생: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넉넉한 하루를 보내면 마음이 풍요롭다. 55년생: 투자는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다. 67년생: 사소한 일로 나分局에 있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화해하라. 79년생: 직장 내 치열한 경쟁에서 실력으로 승리하여 인정받는다. 91년생: 독하게 마음먹고 디어트를 시작하면 성공해 애매진다. 03년생: 눈높이를 맞추면 원하는 이로바이트나 일자리를 획득한다.

원숭이띠: 재치와 유머가 넘치니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다.

44년생: 미루지 말고 건강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물 상태를 체크하라. 56년생: 자녀가 헤도 선물을 사들고 찾아오니 집안에 웃음꽃이 피는다. 68년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독소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야 한다. 80년생: 모임이나 회의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92년생: 회의 시간에 낸 참신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인정받는다. 04년생: 짹사랑 때문에 가슴앓이 할 수 있으니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아라.

닭띠: 위기를 회회로 바꾸는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다.

45년생: 피곤하면 만사를 체크하니 낭비를 자며 쉬어가야 회복된다. 57년생: 형제간에 서로 도울 일이 생기니 우애가 더욱 돋보인다. 69년생: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당장 등록하라. 81년생: 업무상 대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화위복으로 삼는다. 93년생: 동호회나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 05년생: 멋 부리고 외출하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자신감이 생긴다.

개띠: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라.

46년생: 길거리에서 서비스를 불어도 대응하지 말고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58년생: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 미리챙기고 병원에 가라. 70년생: 일시적인 자금 압박이 있으나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82년생: 그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에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성공한다. 94년생: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 사이가 멀어지니 절대 금전 거래하지 마라. 06년생: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성적이 쑥쑥 상승하여 보람을 느낀다.

돼지띠: 행운을 바라기보다는 정직한 땀방울이 가치 있는 날이다.

35년생: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정서적 안정을 찾으라. 47년생: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은 피하고 다음으로 미루다. 59년생: 힘들어하는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라. 71년생: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존경받는다. 83년생: 공동이나 훈제수는 없다. 오직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보상만이 따르는 정직한 하루다. 95년생: 기습 속에 품었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광주매일TV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제야의 종 타종식’ 빛고을 광주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다

#만화 #K팝 #야구 Z세대 ‘덕질’ 문화를 만나다

호남고속도로서 맥주병 320박스 ‘와장창’

[LIVE]

동북아 AI 침단농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파워인터뷰]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주최한 그라시아스합창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

광주매일신문 영상뉴스 제보·문의 062) 650-2010

TV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2)610-7100 MBC (062)360-2000 KBC (062)650-3114 EBS 1588-1580

K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광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광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TV 소진품 명품

12:00 KBS 뉴스 12
1: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KBS 뉴스
2:10 전국을 달린다
2:35 이맘때
2:55 KBS 광주 열린마당

3:00 KBS 뉴스
3:15 월드 24
3: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2

4:00 사사건건
5:00 KBS 뉴스 5
5:30 동물의 왕국

6:00 6·16 내고향
7:00 뉴스 7
7:40 우리말 겨루기

8:30 일일드라마 마리와 별난
9:35 KBS 뉴스 9
9:50 KBS 뉴스 9

10:00 가요무대
10:55 KBS 뉴스라인W
11:35 KBS 네트워크 특선 세
12:05 생활보사의 비밀
1:15 생활의 발견
2:05 방송 시간이 아닙니다(5시
부터 방송